

K-Water, CDM 사업 배출권 매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5월1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독자적 청정개발체제(Unilateral CDM) 사업 배출권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기업은 일본의 Mitsubishi UFJ Bank이며 거래물량은 수자원공사 소수력1(안동·장흥·성남)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9689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다.

수자원공사는 연간 1억8000만원 정도의 거래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5/10>